

2018 한국바로알리기 민간단체지원사업 결과보고서

사업명	제6회 마케도니아국립대학교 "바른 한국알리기 심포지움과 한국문화주간"
사업기관	마케도니아 국립대학교 인문대학
사업책임자	Maja Bojadjevaska
사업기간	동의서제출일로부터 ~ 2018.11.30
사업비	금10,000,000원(금일천만원정)
사업진행현황	<p>1. 개최기간: 2018년 6월 17일 ~ 7월 1일 연수기간 중 개최</p> <p>2. 개최 장소: 마케도니아 대학교 오흐리드 연수원</p> <p>3. (주소: s. Konjsko, 6000 Ohrid, Republic of Macedonia)</p> <p>4. 행사내용: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6회 마케도니아 국립대학교 "바른 한국 알리기 심포지움과 한국문화 주간" [주제: 바른 대한민국의 이미지 알리기 - in 마케도니아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한국문화시연 및 체험행사 마케도니아 오흐리드에서 열리는 여름학교 기간 동안, "바른 한국 이미지"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다. <p>① 한국문화 알리기 프레젠테이션: 영어로 진행, PPT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16년까지 스코페에서 한국어를 가르쳤던 Spas A. Rangelov 선생님이 함께 도움을 주셨다. 마케도니아 학생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동양 이미지와 한국에 대한 편견, 그리고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이미지와 역동적인 이미지 보여주기에 집중하였다. - 프리젠테이션은 한국외대 그리스-불가리아학과 18학번 최은지 학생이 미리 준비하였고, 영어와 마케도니아어, 불가리아어를 섞어서 발표하였다. - 특히 한국문화 소개 프리젠테이션을 마지막 점검할 때 현지 마케도니아어 교사들과 행사 보조 학생들이 도움을 주었다. <p>② 한국문화 및 독도 알리기: 구글 지도로 한국 찾아보기, 동해 표기와 독도 논란에 대해 알려주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다음으로 "독도 알리기"를 주제로 발표와 일본과의 이슈들에 관하여 사진을 통하여 보여주었다. 국제 여름학교라는 특성 때문에, 독도가 한국영토이며, 동해의 표기를 올바르게 해야하는 문제등을 제기하였고,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이미지 보여주었다.



<“한국문화 알리기 프리젠테이션” 준비 자료>



<“한국문화 알리기 프리젠테이션” 발표>



*"Do you want to know about
korea?"*

Date : "26. 06. 2018"

Time : "06 : 30 PM ~"

*Feel the Korean Culture Taste the Korean Food
by Eunji Choi:)*

<"한국문화의 밤" 행사 포스터>

- ③ 한국음식 체험전: 한국 음식 맛 보기, 한국 음식 만들기의 간단한 과정을 통해 한국의 음식문화를 소개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.
- 가장 인기 있었고, 열렬한 호응이 있었던 시간이었다. 음식 문화가 분위기를 더욱 훈훈하게 해 주었고, 시각과 미각을 자극하여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과 선생님들 사이에 더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었다.
 - 특히 예상하지 못했던 한국식 커피 믹스의 반응은 뜨거웠다.
 - 조리실과 세척대가 완비되지 않아 재료와 음식 만들기에 제한은 있지만, 조금 응용하면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다.
 - 매운 라면, 떡볶이가 우려한 바와 달리 인기가 있었다. 특히 한국식 간편식 그 자체에 대한 호응이 좋았다.



<“한국음식 체험”이 끝나고 난 뒤 비워진 그릇들>

- ④ 한글의 제자 원리와 캘리그래프 프리젠테이션: 당초 오흐리드에서 열리는 “마케도니아어” 여름 학교이므로 언어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여 한글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한글의 제자 원리 비디오와 외국 이름 한글로 써보기 행사를 준비하였다.
 붓과 먹으로 진행하면 더 좋았을 테지만, 공간적 제약이 있어, 한국에서 붓펜을 대신 대량 구입해 갔다.
 제자 원리 설명은 비디오로 대신하였고, ‘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기’를 시연하고 시도하였다.
- ⑤ 한국의 전통 물품 나눠주기: 종이로 부채 접기, 한지 부채 나눠주기
 한국에서 대량 구입해 간 부채를 기념품으로 나눠주었다.
 시기가 여름의 가장 더울 때와 맞물려 있어서 부채가 가장 유용한 아이템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, 열쇠고리 등 다른 기념품도 있었지만, 부채 나눠주기를 하였다.



<부채 기념품 나눠주기>



<부채 기념품 나눠주기II>

▪ 한국영화와 K-POP 공연 방영

- ① 걸그룹과 보이그룹 영상보기와 따라 해 보기
- ② 마케도니아 대학 내 K-pop 동아리가 있어, 학생들의 조력으로 셔플댄스를 간단하게 배워보고 함께 하기 시간이 있었다.

마케도니아의 k-pop동아리 "막걸리"의 웹사이트와 페이스북

<http://mymakkoli.blogspot.com/>

<https://www.facebook.com/groups/164291277000838/about/>



<K-pop 댄스 팀과 기념사진>



<행사 후 전체 기념사진>

기타

이번 제 51회 오흐리드 여름학교는 마케도니아의 수도인 스코피에에 위치한 "Ss. Cyril and Methodius University in Skopje"에서 매년 주최하는 마케도니아어와 마케도니아어 알리기 행사의 일환이다. 따라서 이 대학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현지 학생과 해외에서 마케도니아 연수에 참여한 학생들이 본 행사의 진행요원 역할을 하면서 한국문화가 좀 더 친숙해지고, 교류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. 아울러 상기 기간 동안 마케도니아 오흐리드에서 열리는 NI International Seminar on Macedonian Language, Literature and Culture에 참여한 최은지 학생(한국외대 그리스-불가리아학과 전공 학생)은 현지 홍보를 담당하고 각 행사에서 프리젠테이션과 시음, 시식회의 주관을 하였다. 현지 마케도니아 대학 학생은 행사 조력 역할을 하여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도왔다.



<오흐리드 여름 학교를 수료하고 난 후 받은 수료증>



<공동행사 보조원이었던 Natasha Andrieska와 함께>

예산사용세부내역	1	2018-06-08	E-mart 식료품 배달비	8,500
	2	2018-06-08	E-mart 식료품	112,350
	3	2018-06-08	E-mart 식료품	20,180
	4	2018-06-08	E-mart 식료품	18,130
	5	2018-06-08	비상약 구입비	16,000
	6	2018-06-08	한복 구입비 (저고리, 치마, 손수건)	239,000
	7	2018-06-06	한국문화 기념품 구입비 (부채 2900X70, 수저세트 10,800X10, 나무수저 세트 2,700X20)	401,500
	8	2018-06-14	홍보 현수막 출력비	50,000
	9	2018-06-14	출국 전 준비 회의비	260,000
	10	2018-06-15	연구보조원 여비 (비행기표 및 입국버스 교통비)	1,300,000
	11	2018-06-17~07-02	연구보조원 체류비 (일비 및 추가 식비)	2,400,000
	12	2018-06-26	K-pop 댄스팀 등 행사진행 보조원들 인건비 (마케도니아인 7명)	4,200,000
	13	2018-07-01	현지 홍보 및 회의비	1,000,000
		합계	10,025,660	